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 한림의 아버지 유공은 이윽고 주파를 보내 사 급사 부인에게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다. 사 급사 부인이 주파를 불러 보았다. 주파는 먼저 유공의 가문이 대대로 부귀하며 한림의 문채와 풍류가 빼어남을 칭찬했다. 주파는 이어서 다시 말했다.

“어느 재상인들 유공에게 혼인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유공께서는 ‘소저의 자태가 국색(國色)이요 재덕이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이에 소인으로써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한 것입니다. 소저께서는 유공 덕의 폐백을 받는 날 바로 명부(命婦)*가 되실 것입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만 소저와 의논하고자 하여 주파를 기다리게 하고 순수 소저의 침소로 갔다. 부인은 주파가 말한 대로 전하고 소저의 뜻을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을 숨기지 말아라.”

그러자 소저가 대답했다.

“소녀가 들으니 유공은 당대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혼인을 맺음에 불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파의 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가 듣건대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되 색(色)을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을 가지고 시집을 가되 색으로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가 먼저 소녀의 색을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 덕의 부귀함은 크게 자랑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성덕(盛德)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파가 미천한 사람이라서 유공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소위 ‘유공이 어진 사람이다.’고 하는 말은 헛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녀는 그 덕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 급사 부인은 평소 딸을 몹시 사랑했다.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었겠는가? 부인은 밖으로 나가 주파에게 말했다.

[A] [“유공께서는 소녀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것이요. 소녀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였소. 손으로 직접

방적(紡績)하면서 여공(女工)이나 조금 익혔을 따름이랴오.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에 걸맞은 화용 성식(華容盛飾)이 있을 리가 있겠소. 혼사를 맺은 후에는 필시 소문과 다르다 하여 죄를 얻을 것이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청컨대 그렇게 회보해 주시기 바라오.”]

주파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재삼 흔쾌한 승낙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 부인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었다. W 주파는 돌아가 그대로 유공에게 아뢰었다.

유공은 자못 불쾌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다시 주파에게 물었다.

“애초 자네가 무엇이러 말씀을 하셨던가?”

주파는 자신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전했다. 그제야 유공은 깨닫고서 웃었다.

“내가 일에 소홀하여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일세. 잠시 물러나 계시게.”

유공은 그 이튿날 친히 신성현으로 가서 지현(知縣)을 만났다. 사 급사 덕에 청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일찍이 주파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저 덕의 대답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필시 주파가 실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롭겠지만 선생께서 한번 사 급사 덕을 방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지현이 대답했다.

“유공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 급사의 청명(淸名)을 흠모하며 또한 소저가 부덕(婦德)을 갖추었다고 들었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덕에서 의당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지현은 마침내 아전을 사세 덕으로 보내어 ‘지현 상공께서 장차 찾아오실 것이다.’고 전하게 했다. 부인은 그 행차가 혼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객당을 청소하고 지현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했다.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희랑을 품에 안고 나아가 지현을 영접했다. 유모는 객당 마루로 지현을 안내하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린 주인께서도 나이가 어려 아직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십니다. 지현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다?”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지. 어제 유공께서 관아로 오셔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아들 혼사 때문에 처자가 있는 집을 찾은 바가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듣건대 사 급사 맥의 처자는 유한하고 요조하여 여사(女士)의 품모가 있다 합니다. 이는 진정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 사 급사의 청명(淸名)과 직절(直節)은 평소 흠양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파를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파가 실언하여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고 말이지. 이제 나를 중매로 삼아 혼인을 맺으려 하신다네. 이는 좋은 일이지. 바라건대 부인에게 아뢰어 한 마디 승낙하신다는 말씀을 얻고자 하네.”

유모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지현께서 제 딸의 혼사를 위하여 누실(陋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바 유공 맥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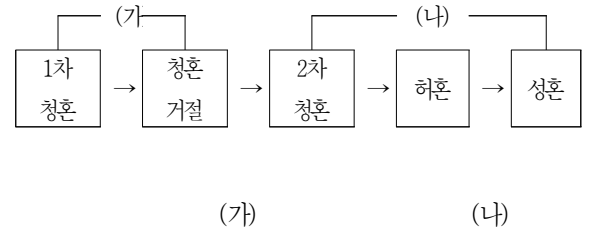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공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유공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六禮)*를 갖추어 친히 신부를 맞이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명부(命婦): 국가로부터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 * 육례(六禮): 혼인의 여섯 단계 절차.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과거 장면의 교차가 빈번하다.
 - ② 사건 전개가 전기적(傳奇的)이고 우연적이다.
 - ③ 등장인물들 사이에 생겨났던 오해가 해소된다.
 - ④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잘 드러난다.
 - ⑤ 환상적 장면 묘사를 통해 탈속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2. <보기>는 위 글의 혼인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잘못 정리한 것은?



- ① 청혼하는 자: 경솔하게 생각한다. 신중하게 행동한다.
- ② 전달하는 자: 용모와 부귀를 강조한다. 덕성과 기풍을 강조한다.
- ③ 접대의 양상: 사 급사 부인이 맞이한다. 소공자(유모)가 맞이한다.
- ④ 혼인 당사자: 자기주장을 펼친다. 혼인 의사를 직접 밝힌다.
- ⑤ 사건의 결과: 혼인이 성사되지 않는다. 혼인이 성사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수인(囚人)들은 늘 벽을 만납니다. / 통근길의 시민이 'stop'을 만나듯, 사슴이 엽사(獵師)*를 만나듯 수인들은 징역의 도처에서 늘 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유의 시간인 꿈속에서마저 벽을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무수한 벽과 벽 사이, 운신(運身)도 어려운 각진 공간에서 우리는 부단히 사고(思考)의 벽을 헐고자 합니다. 생각의 지붕을 벗고자 합니다. 흥회쇄락(胸懷灑落) 광풍제월(光風霽月).* 그리하여 이윽고 '광야(曠野)의 목소리'를, 달처럼 둥근 마음을 기르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님 서한(書翰)에 육년래(六年來)의 혹한(酷寒)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런 추위를 실감치 않았음은 웬일일까. 심동(深冬)의 빙한(氷寒), 온기 한 점 없는 냉방에서 우리를 덮어 준 것은 동료들의 체온이었습니다. 추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체온을 모으는 동안 우리는 냉방이 가르치는 '벗'의 의미를, 겨울이 가르치는 '이웃의 체온'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머지않아 강물이 풀리고 다사로운 춘풍에 이른 꽃들이 필 무렵, 겨우내 우리의 몸속에 심어 둔 이웃들의 체온이 송이송이 빛나는 꽃들로 피어날는지……. 인정은 꽃들의 웃음소리.

구정 때 보낸 편지와 영치금 잘 받았습니. 염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기쁨은 흡사 소년들의 그것처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제수(弟嫂)*와 시숙(媳叔)*의 사이가 '어려운 관계'라고 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의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

다. 현재로서는 물론, 동생을 가운데 둔 관계이며 '생활의 공유'를 기초로 하지 않은, 또 그만큼 인간적 이해가 부족한 관계라는 사실을 없는 듯 덮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차피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장래의 유대를 미리 가늠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면 '소식의 공유'쯤 당장부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려운 관계'의 그 어려움이 차차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건투를 빕니다.

- 신영복 「이웃의 체온 계수님께」

(나)한가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절세의 고종(孤元)*이라 시주(詩酒)에 회포 붙여
 불출문(不出門)*의 하오면서 편케 편케 날 보내니
 춘풍에 놀란 꿈이 번산에 서리 온다
 남천(南天)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 보니 오랑캐 지경이라
 개가족 상하착(上下着)은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기민(饑民)*의 조석이라
 본관(本{官)의 성덕(聖德)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이내 목숨 달반을 걸렀더니
 천만의외(千萬意外) 가신(家信) 오며 명복이 왔단 말
 가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 되었구나
 절세에 있던 사람 향간에 돌아온 듯
 나도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서봉을 떼어 보니 정찰(情札)이 몇 장이고
 [A][꼭꼭이 친척이요 면면이 가향이라
 지면의 자자획획 자질(子姪)*의 눈물이요
 옷 위의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소동파 초운*인가 양대운우* 불쌍하다
 그중에 사람 죽어 돈물(頓歿)이 되단 말가
 명복이 대코 앉아 눈물로 문답하니
 집 떠난 지 오래거든 그 후 일을 어이 알리]
 만수 천산 멀고 먼데 네 어찌 돌아가며
 덩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 없겠구나

- 김진형 「북천가(北遷歌)」

(나)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못노라 이 내 꿈아
 만리 요양(萬里遼陽)*을 어느 사이에 다녀왔고
 반갑다 학가 선옹(鶴駕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풍설(風雪) 석거친 날에 못노라 북래 사자(北來使者)*야
 소해 용안(小海容顏)*이 얼마나 추우시고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 계워 하노
 라. <제2수>

구중(九重)* 달 밝은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많으려니
 이역 풍상(異域風霜)에 학가인들 잇을소나
 이 밖에 억만창생을 못내 걱정하시는가. <제7수>

조그만 이 한 몸이 먼 곳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의 어느 곳이 서울이고
 바람에 지나는 검줄*갈아서 갈길 몰라 하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엽사(獵師): 사냥꾼을 높여 이르는 말.
 * 흉회쇄락(胸懷灑落) 광풍제월(光風霽月):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과 같다.'는 뜻으로, 북송(北宋)의 시인인 황정견이 주돈이를 존경하여 쓴 글에서 나옴.

* 제수(弟嫂):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계수(季嫂)

* 시숙(媳叔): 남편의 형제.

* 고종(孤):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몸. ≒고독단신(孤獨單身)

* 불출문(出門): 문 밖으로 나오지 아니함.

* 기민(饑民): 굶주린 백성.

* 자질(子姪): 아들과 조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여질(子與姪)

* 초운: 소동파가 사랑했던 기생.

* 양대운우(襄臺雲雨): 초나라 양왕(襄王)이 꿈속에서 선녀를 만났다는 전설을 인용한 것. 남녀 간 사랑의 행위를 비유하는 말.

* 만리 요양(萬里 陽): 만 리나 떨어진 요양. 요양은 청나라의 지명.

* 학가선옹(鶴駕仙容): 왕세자가 타던 수레 [鶴駕] '와 '신선같은 얼굴 [仙容] '이라는뜻이 합쳐진 말로, 여기서는 왕세자의 모습을 가리킴.

* 북래 사자(北來 使者): 북쪽 청나라에서 온 사신.

* 소해 용안(小海容顏): 왕세자의 얼굴.

* 고신(孤臣): 외로운 신하.

* 구중(九重):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구중궁궐(九中宮{闕})

* 성려(聖慮): 임금의 염려를 높여 이르는 말.

* 검줄: 검불.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가족과 떨어진 공간에서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실과 유리된 세계가 제시되어 있다.
- ④ (가)~(다)에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에는 모두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 있다.

4. (나)와 (다)를 읽고 [명록과 북래 사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하는 일	화자가 물어본 것	시적 기능
명록	편지를 가져다 줌	고향 사람들의 소식	(ㄴ)
북래 사자	청나라에서 온 사신의 역할을 함.	(ㄱ)	

	(ㄱ)	(ㄴ)
①	먼 곳에 있는 임금의 안부	화자의 심리에 변화를 줌.
②	왕세자가 있는 곳의 사정	화자의 태도를 바꾸어 줌.
③	고국에 있는 신하들의 소식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함.
④	북쪽 지방 사람들의 형편	화자에게 새로운 상황을 부여함.
⑤	추위에 떨고 있을 왕세자의 안위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매화를 볼 때마다 항상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감정에 붙들리고야 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왜냐 하면, 첫째로 그것은 추위를 타지 않고 구태여 한풍을 택해서 피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것은 그럼으로써 초지상적인, 비현실적인 인상을 내 마음속에 던져 주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혹은 눈 가운데 완전히 동화된 매화를 보고, 혹은 찬 달 아래 처연히 조음된 매화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매화가 사군자의 필두로 꼽히는 이유를 잘 알 수 있겠지만, 적설과 한월을 배경으로 삼은 다음에야만 고요히 피는 이 꽃의 한없이 장엄하고 숭고한 기세에는, 친화한 동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굴복감을 우리는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매화는 확실히 봄 경치가 화창한 계절에 만발하여 어지럽게 피는 농염한 백화와는 달라, 현세적인 향락적인 꽃이 아님은 물론이요, 이 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초고하고 절개가 굳은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얼어 붙어서 찬 돌같이 딱딱한 엄동, 모든 풀, 온갖 나무가 모조리 눈을 감고 추위에 몸을 떨고 있을 즈음, 어떠한 자도 꽃을 찾을 리 없고 생동을 요구할 바 없을 이 때에, 이 살을 저미는 듯한 한기를 한기로 여기지 않고 쉽사리 피는 매화, 이는 실로 한때를 앞서서 모든 신산을 신산으로 여기지 않는 선구자의 영혼에서 피어오르는 꽃이랄까?
 - 김진섭, <매화찬>

[나]
 난을 달라는 이는 많으나, 잘 기르는 이는 드물다. 난을 나누어 가면 죽이지 않으면 병을 내는 것이
 ① 다. 난은 모래와 물로 산다. 거름을 잘못하면 죽든지 병이 나든지 한다. 그리고 별도 아침 저녁 외에는 아니 쪼여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길러 보고야 그 미립이 난다 하는 건, 첫째, 물 줄 줄을 알고, 둘째 거름 줄 줄을 알고, 셋째, 추위를 막아 줄 줄을 알아야 한다. 조금만 촉랭(觸冷)해도 감기가 들고 뿌리가 얼면 바로 죽는다.
 이전 서울 계동(桂洞) 홍술햇골에서 살 때의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古書)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 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 무상(無我

無想)의 경지(境地)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중략>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곱란이
㉠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았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
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
었다. 하이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중략>

〔완당(阮堂)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
㉡ 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귀자·
계수 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
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향수문주인(看竹向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
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
(古書)도 없고, 난(蘭)도 없이 되잖은 서화(書畵)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
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5. [가] 와 [나] 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은?

- ①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함.
- ②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 ③ 대상이 지닌 속성을 바탕으로 서술함.
- ④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냄.
- ⑤ 설득의 어조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함.

6.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화’를 소재로 한 시조를 찾아 보았다. 밑줄 친 ㉠~㉥ 중, [가]의 둘째 무단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 눈 올 때쯤 피우겠다더니 너 과연 피었구나. / ㉡ 황혼에 달이
뜨니 그림자도 등성하구나. / ㉢ 매화, 너의 맑은 향이 술잔에 어
리었으니 취해 놓고자 하노라. // ㉣ 황혼에 뜬 달은 미리 너와 만
날 기약을 하였더니? / 화분 속에 잠든 꽃이 향기를 풍기
며 맞이하는구나. // ㉤ 내 어찌 달과 매화가 벗인 줄 몰랐던고
하노라.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다른 눈썹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늉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짚은 짓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뒤들어 싸워 주며, 부지런하려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 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라구 웅쩍이가 그럴당께.”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팀전을 보아 제뭇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레 근본의 어떠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 꼬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驕前婢) * 와 난봉난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됴됨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을 끼고 돌면 요까티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여섯 가구뿐으로 일 년 내내 대사 한 번 치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서고 한 채에 여남은 가구씩, 북해도에서 왔다는 전재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

면서 전재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읍내의 지계꾼, 신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제꼴이 남루한 낫선 사람은 모두 전재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재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재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임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재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림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웅점이는 조금 달랐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다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숨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홀이불을 덮는다든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제꼴이 것처럼 비렁뱅이 꼴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재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꾀하던 것이

[A] 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오꼬시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전디겼슈.”

웅점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점이는 서슴지 않고,

“쪽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군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혹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찮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연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않

[B] 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웅점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점이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

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향품배: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교전비: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8. 위 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 웅점이가 솜씨는 나무랄 데 없지만 통이 너무 커서 앞날이 걱정이야.
- ② 웅점이 자신 : 나보고 오지랖이 넓다고들 하는데, 나 없으면 동네 큰 잔치는 누가 준비하지?
- ③ 장돌뱅이 총각 : 웅점이가 가난하지만 앓으면 색시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 ④ 근동 사람 : 웅점이네 속사정을 잘 아는데, 웅점이가 사람만 놓고 보면 커다란 흠은 없지.
- ⑤ 절름발이 늙은이 : 관촌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웅점이는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주지.

정답 및 해설

1) <답> ③

유공은 자기의 아들인 유한림과 사급사 부인의 딸이 혼인할 수 있도록 주파를 보내어 그 뜻을 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급사 부인의 딸은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여 혼인을 거부한다. 하지만 사급사의 딸은 지현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고 한림과 혼인하게 된다.

①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② 전기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선과 악이 대립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혼인 문제를 둘러싼 인물들의 심리가 드러나 있을 뿐, 환상적인 장면 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

2) <답> ④

(가)에서 혼인 당사자인 소저가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혼인 당사자인 소저가 직접 혼인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① (가)에서 주파가 소저의 자태를 칭찬하며 경솔하게 혼인을 권유하고 있지만, (나)에서 지현은 신중하게 혼인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② (가)에서 주파가 유공 가문의 부귀와 한림의 문체와 풍류가 빼어남을 내세우고 있으나, (나)에서 지현은 사급사의 청명과 직절을 거론하며 그의 성덕을 말하고 있다. ③ (가)에서 사급사 부인이 주파를 맞이하고 있으나, (나)에서 유모가 지현을 맞이하고 있다. ⑤ (가)에서 소저가 상대방 집안을 오해하여 혼인을 거부하지만, (나)에서는 그 오해가 풀리고 소저가 한림과 혼인하게 된다.

(가) 신영복, 「이웃의 체온- 계수님께」

신영복의 옥중 서신은 몸이 구속됨으로써 더욱 같고 다듬어질 수 있었던 정신적 성취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그의 서신 속에는 함께 복역 중이던 장기수들에 대한 동지애적인 믿음뿐 아니라, 만날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 큰 감동을 준다.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를 중심으로 이 글이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해제] 이 글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88년에 특별 가석방된 신영복의 옥중 서간이다. 230여 편의 옥중 서간을 모아 엮은 책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속에 수록되어 있는데, 직접 수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감정과 깨달음이 잘 담겨 있다. 특히 「이

웃의 체온」에서는 감옥에서 함께 혹독한 겨울을 나는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내 '벗'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동생의 아내인 계수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기쁨을 드러내면서, 계수와 시숙이라는 어려운 관계를 가족애로 넘어서려는 글쓴이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인간미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주제] 옥중에서 얻게 된 깨달음

1~2문단: 옥중에서 사고의 벽을 헐고자 하는 노력

3~4문단: 추위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동료의 정

5~6문단: 계수와 시숙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

(나) 김진형, 「북천가(遷歌)」

이 시가는 김진형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체험한 견문과 느낀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울을 떠나 유배지로 갔다가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독특한 체험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시적 형상을 보여 주고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유배지에서 느낀 화자의 정서가 어떠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지 주목하며 감상한다.

[해제] 이 작품은 철종 때 김진형이 함경도 명천으로 귀양을 가서 거기서의 생활과 느낀 점을 노래한 장편 가사이다. 자신이 유배된 내력과 유배지에 있는 유생들과의 교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배소에 있는 기생들과의 풍류와 연정 등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묘사와 서술은 조선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잘 포착하여 보여 주며, 다양한 표현법과 예술적인 형상화도 높은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유배지에서 느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1~8행: 북방의 유배지에서 맞이하는 가을

9~22행: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가져 온 명녹

23~24행: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 이정환, 「비가(悲歌)」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슬퍼하며 지은 전 10수의 연시조이다. 병자호란을 내용으로 한 대표적인 시조 작품으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신하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절실한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다.

시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바탕으로 화자가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이것을 역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지어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해제]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안타까워하며 지은

10수의 연시조로 이정환의 문집인 『송암유고(松巖遺稿)』에 실려 있다. 청(淸)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昭顯世子)를 꿈에서 만나고 온 이야기로 시작하여, 국치(國恥)의 비분강개를 꾸밈없이 노래하고 있다. 병자호란을 내용으로 한 대표적인 시조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제] 국치에 대한 비분강개

제1수: 꿈속에서 본 세자에 대한 그리움

제2수: '소해용안'에 대한 그리움

제7수: 근심 많은 임금님에 대한 걱정

제9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3) <답> ①

(가)와 (나)에는 모두 가족과 떨어진 공간에서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가)에는 아버지, 계수 등과 생활을 공유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 있으며, (나)에는 아내와 친척들을 만날 수 없는 유배지에서 살아야 하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가)의 '수인들은 징역의 도처에서 늘 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유의 시간인 꿈속에서마저 벽을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동생을 가운데 둔 관계이며 '생활의 공유'를 기초로 하지 않은, 또 그만큼 인간적 이해가 부족한 관계라는 사실을 없는 듯 덮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등과 (나)의 '한가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 절세의 고종(孤元)이라 시주(詩酒)에 회포 붙여 / 불출문(出門)의 하오면서 편케 편케 날 보내니' '집 떠난 지 오래거든 그 후 일을 어이 알리 / 만수 천산 멀고 먼데 네 어찌 돌아가며 / 덩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 없겠구나' 등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와 (다)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정서는 찾기 어렵다.

③ (나)와 (다)에는 현실과 떨어진 이상 세계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가)~(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찾기 어렵다.

⑤ (가)에는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려는 글쓴이의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답> ⑤

(다)의 '풍설(風雪) 석거친 날에 뭇노라 북래 사자(使者)야 / 소해 용안(小海容顏)이 얼마나 추우시고'로 보아, 화자가 '북래 사자'에게 물은 것은 추위에 떨고 있을 왕세자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와 (다)에서 '명복'과 '북래 사자'는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명복'을 만난 후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덤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 없겠구나'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북래 사자'에게 왕세자의 안위를 물은 후 '눈물 계워 하노라.'를 통해 청나라에 잡혀간 왕세자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ㄱ): '소해용안'은 왕세자를 일컫는 말이므로 임금의 안부를 물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ㄴ): (다)의 경우 '북래 사자'를 언급하기 전과 후 화자의 커다란 심리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②(ㄱ): '북래사자'는 왕세자가 붙잡혀 간 곳에서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왕세자가 있는 곳의 사정을 물었다고 볼 수 있다. (ㄴ): (다)의 경우 '북래 사자'를 언급하기 전과 후 화자는 모두 왕세자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북래사자'로 인해 화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ㄱ): '고국'에 있는 화자가 청나라에서 온 사신에게 '고국에 있는 신하들의 소식'을 묻는다는 것은 논리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고국에 있는 신하들의 소식을 물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ㄴ): (다)의 경우 '북래 사자'를 통해 새로운 내적 갈등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ㄱ): 북래 사자가 북쪽에서 온 것은 맞지만 '소해 용안'의 안부를 묻고 있으므로, 북쪽 지방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ㄴ): (다)의 경우 화자는 이전과 유사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북래사자'를 통해 화자에게 새로운 상황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답> ③

[가]는 매화의 초지상적이고 선구자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나]는 난초의 고결한 속성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6) <답> ③

<보기>는 추위를 뚫고 눈 속에 피어난 매화가 달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낀 화자의 감탄을 노래하고 있다. ㉠, ㉡, ㉢, ㉣는 [가]의 둘째 문단의 내용 중 '눈 가운데 완전히 동화된 매화', '찬 달 아래 처연히 조영된 매화', '적설(積雪)과 한월(寒月)을 배경으로 삼은 다음에라야만 고요히 피는 이 꽃'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와 관련된 내용은 [가]의 둘째 문단에 나타나 있지 않다.

7) <답> ④

대화 부분에서 특히 충청도 특유의 방언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진술되어 있어서 생생한 느낌을 준다. '옹젼

이(옹점이)', '그렇당께(그렇다니까)', '-헌티(한테)', '전디겼슈(견디겠어요)' 등에서 이러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자의 독백적 진술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사투리가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신 순수한 우리말과 토속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정답 ④

① 서술자는 '나'로 일관하고 있다. ② 인용된 부분에서는 옹점을 평가하고 있는 마지막 대목에서만 현재의 시각으로 진술했고, 나머지는 옹점에 관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③ 서술자인 '나'가 주관적 입장에서 주인공 옹점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⑤ 서술자인 '나'의 눈으로 옹점에 얽힌 일들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 이질적인 시선이 대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8) <답> ③

옹점은 '교전비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난 천한 신분의 인물이다. 구시대의 잔재인 신분 의식이 아직 남아 있던 당시에는 이것이 혼사에 큰 장애로 작용하여, 근동의 총각들이 그녀에게 눈독은 들일망정 혼인의 상대로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③은 등장인물의 입장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어머니는 옹점의 음식 솜씨나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인정했으나, 손이 커서 헤폰 데가 있다고 걱정을 했다. ② 옹점은 부지런하고 손놀림이 빨라 동네의 큰 일에 불러 다니며 뒤통다꺼리를 도맡아 해주었고, 그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대견스레 여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④ 근동 사람들은 옹점이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일도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그녀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⑤ 옹점은 처자식을 잃고 홀로 된 절름발이 늙은이를 측은하게 여겨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를 돕는다.